

# 큰 일교차·쌀쌀해진 날씨... ‘감염병’ 주의보

췌췌가무시증 가을철 주로 발생  
독감 예방접종 이달중 받아야  
A형 간염 예방 조개류 익혀먹길  
질병관리본부, 예방수칙 당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광주·전남에 췌췌가무시증과 인플루엔자(독감) 등 감염성 질병 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남은 췌췌가무시증 발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5일 일교차가 큰 가을과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손씻

기, 기침예절,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췌췌가무시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94년 238명에서 2001년 2637명, 2016년 1만1105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췌췌가무시증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10월에서 12월 사이 발생하고, 11월 감염이 가장 많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췌췌가무시증 발생이 56.36명으로, 충남(42.75명)과 경남(36.69명) 등 타지역에 비해 높다.

가을과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췌췌가무시의증은 주로 50대 이상 연령에서 발생한다.

이 군에 감염되면 1~3주의 잠복기를 거

쳐 두통·발열·오한·구토·발진·근육통·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집에 돌아오는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해야 한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겨울철 단골손님인 독감과 A형 감염, 노로바이러스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독감은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백신은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약 6개월 정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중에는 예방접종

을 받아야 한다고 권장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 27%(1381만명)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최근 조개젓 섭취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A형 간염도 조개류를 익혀 먹는 등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의 구토물이나 오염된 손등을 통해 전파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는 것이 좋다.

/김현명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8  
해질녘 17:34

달뜨기 14:40  
달짐 00:46

구름 낀 가을하늘

맑은 후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8/20

보성

구름많음

5/20

목포

구름많음

10/18

순천

구름많음

9/22

여수

구름많음

11/20

영광

구름많음

7/18

나주

구름많음

4/20

진도

구름많음

9/19

완도

구름많음

11/20

전주

구름많음

7/18

구례

구름많음

7/20

군산

구름많음

7/17

강진

구름많음

7/21

남원

구름많음

5/19

해남

구름많음

5/20

흑산도

구름많음

13/18

장성

구름많음

6/19

◇ 바다 날씨

|              | 오전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앞바다       | 북서~북 | 0.5     | 북서~북 | 0.5     |
| 남부·앞바다       | 북서~북 | 0.5~1.0 | 북서~북 | 0.5~1.0 |
| 남해·서부·앞바다(동) | 북서~북 | 0.5     | 북서~북 | 0.5     |
| 남해·서부·앞바다(서) | 북서~북 | 0.5~1.0 | 북서~북 | 0.5~1.0 |
| 남해·서부·앞바다(남)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0.5~1.5 |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 주말 날씨

| 7(목) | 8(금) | 9(토) | 10(일) | 11(월) | 12(화) | 13(수) |
|------|------|------|-------|-------|-------|-------|
|      |      |      |       |       |       |       |
| 8/18 | 5/16 | 5/17 | 6/16  | 10/17 | 8/18  | 8/17  |

안개에 갇힌 광주...“안전 운전 하세요” 5일 오전 광주 도심 아파트들이 집은 안개에 가려져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큰 일교차로 인해 안개가 짙 것으로 예상에 따라 출근길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 특혜성 인사 지적에도 꿈쩍 않는 광주교육청

교육감 측근 두차례 부적절 발령  
광주시교육청의 특혜성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시교육청이 교육감 측근 인사를 두차례나 부적절하게 교육전문직으로 발령내 교육부의 지적을 받았다.

5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경호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13년 공모를 통해 당시 교사 A씨를 임기 2년의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으로 임용했다.

임기 만료 후에는 이전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게 조건이었으나 A씨는 임기 후에도 교사로 복귀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오히려 2015년 재공모를 통해 정책기획담

당 장학관으로 재 임용했다.

교육청은 재공모시 기존 2013년 조건과 달리 임기 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교사로 복귀하지 않고 재 임용됐던 A씨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모 기간(임기 2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년 9월 A씨를 공모 직위해제하고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전보했다.

공모 당시 임용 조건(임기 2년)을 위반했음에도, 사실상 영전하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교육부도 지난 3월 종합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지적하고, 당시 인사 책임자인 교

원인사 과장과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현재 당사자들은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시교육청도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시교육청 안팎에서 장휘국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3월 조각개편을 통해 초대 정책국장에도 임명됐다.

이경호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인사권 행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12월 중순·전남 12월 말 김장 하세요

케이웨더 “기온 평년보다 높아 김장 적정시기 2~4일 늦어질 듯”

광주는 12월 중순, 전남은 12월 말께에 김장을 하면 가장 맛있는 김장 김치를 담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간 기상정보회사인 케이웨더는 “올해 11월 말과 12월 초순 기온이 평년(1981~2010년)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김장 적정시기는 평년보다 2~4일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의 김장 적정시기도 평년보다 2일 늦은 12월 13일로 전망됐다. 전남의 경우는 목포 12월 27일, 여수 내년 1월 1일 등 12월 말에서 내년 1월초까지를

김장 적정시기로 봤다.

일반적으로 김장 적정 시기는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이하고,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를 적기로 본다.

기온이 높은 경우는 김치가 빨리 익게 되고, 기온이 낮을 경우는 배추나 무가 얼게 돼 제 맛을 내기 어렵다는 게 케이웨더측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매년 김장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는 이유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등을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수험생 가장 듣기 싫은 말 “○○는 수시 붙었다더라”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누구는 벌써 수시(수시모집)에 붙었다더라”였다.

5일 교육평가전문기관 유웨이가 수험생 9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능 전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누구는 벌써 수시

써 수시 붙었다더라”(34.1%)였다. 이어 “재수하면 되지”(25.1%), “시험 잘 볼 수 있지?”(19.8%), “절대 실수하지 마”(14.2%) 순이었다.

반대로 수능 전 기운을 북돋게 하는 것은 “용돈”(40.5%)이 가장 높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21.5%), ‘주위 사람들의 잡쌀떡과 응원 메시지’(17.3%), ‘친구끼리의 응원 메시지’(11.6%) 등이었다.

또 3월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영어를 가장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고 답한 수험생이 32.6%로 가장 많았고, 수학(30.7%)과 국어(22.1%)가 뒤를 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세월호 가족협 “檢, 책임자 처벌 위해 전면 재수사해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는 5일 검찰에 세월호 참사 살인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장준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가족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직접 앞장서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함께해주길 요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모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범죄에 앞장선 자가 바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책임자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됐다”면서 “얼마 전에는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을 새로운 영입 인사로 발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 참사’를 낸 책임자”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19 12.1 ~ 12.31

무등파크 호텔&리조트

송구영신 패키지 특별프로모션

기업행사 · 세미나 · 대관 · 가족행사 · 돌잔치 · 송년회 · 신년회

01 송구패키지 (100명) -5,997,400원 → 5,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02 영신패키지 (200명) -10,861,600원 → 10,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최소 2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

예약문의 062-226-0011